

선교지의 COVID-19

최윤섭

최윤섭선교사님과 현지인 동역자분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최선교사님은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주 구토를 하신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지 의사가 열 결이 되서 살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소남

현재 정소남 선교사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며, 하바루스크 은혜 교회에 교인 중에 확진자가 3명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신 동역자 분들

김명자
웨장암으로 강한약 치료에도 암세포가 크더니, 약한약으로 전이를 예방하다가 검사 결과 1.7cm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 불가한 일이라고 합니다.

김재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파나마 국립 병원에 입원한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직 멧기열은 있어서 치료 중입니다.

이예신
첫 항암 치료는 네팔에서 한 후 특별기로 6

월 1일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자가 격리를 제주도에서 하던 중 폐혈증으로 서귀포 의료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최지섭 이혜영
이혜영 선생님의 2번째 재 수술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를 했지만, 항암 치료로 암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 3번의 수술 결과 보이는 곳은 암이 제거됐지만, 유방과 임파선의 암이 크고 숫자가 많아 암이 있을 거라 확실하기에 경구항암제를 6개월 하고 방사선 치료 후 표적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유방암 3기말이라고 합니다.

은혜 한인 교회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탄자니아 송규영 오호숙 선교사

1. 성령충만 하도록
2.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슬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3.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4. 에버그린 학교 건물 렌트비와 선생님들 보급 및 학교 운영비를 위해
5. 성경 대학 학생들이 하루에 말씀 10장씩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6. 킴니 학교 책걸상 및 비품 구입, 조경공사, 그네, 전기, 수도 공사 등 필요한 재정 공급과 믿음으로 가르칠 교사를 보내 주시기를 또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7.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프리카에 코로나 19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8.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 하시

기를

9.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들이 잘 견디고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10. 저희 부부의 건강 (오: 치과치료, 송: 치통, 고관절 통증)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사할린 천병기 천사라

1. 사할린 은혜 중앙 교회와 산하6개지역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기도와 믿음에 용사들로 거듭나도록.
2. 사할린에 달하였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사 속히 들어가 사역이 이루어 지도록.
3. 사할린 은혜 재단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과 온 성도님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지켜내도록 이기고 승리하도록.

광고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charitable organization 리스트에서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https://smile.amazon.com/ch/95-3861464>.

<1분 단상> - 81 번째

김대규 장로

준비된 믿음, 준비된 삶이어야 할 때가 이르렀다면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이 어느정도 가라앉은 후에는 정치,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변화가 오리라고 들 한다. 추상적으로 생각되어졌던 일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들이 세상살이에서 편하거나 필요한 것처럼 보여 어느 것은 빠르게, 어떤 것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예를 든다면 Veri-Chip과 Global Digital I.D이다. 개인 재정, 의료, 신상정보(I.D)와 함께 RFID, GPS와 연결하여 위치추적이 가능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개량된 괴물로 이에 대한 보급이다. 세상에서는 편리성, 안정성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순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옥쇄가 되고 고통이 되고 역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건해야 한다(벧전5:10 꼭참조).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도 언급되어져 이 땅을 지배할 짐승이 나타났을 때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계13:15-18). 그리고 보면 시간의 여유는 있는 듯하다.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이 환란의 시작이던 아니던 간에 주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인 것이다. 부활에 대한 준비된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이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분별이 되어 두려운 영, 욕심의 영, 미혹의 영에 잡혀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이기 거룩하시니 주를 믿는 자들도 거룩해야만 한다(살전5:23 꼭참조). 거룩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는 있다. 그런데 실재가 문제인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다(롬6:22 꼭참조). 이를 위해서는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달리 표현해서 내자신이 죽는 것,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욕망과 소욕과 자신만이 가진 우상숭배를 잘라내는 삶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속에 계신 삶이다. 최우선순위로 끝 순위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께서는 산상수훈(마5-7장)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기도의 방법도 주기도문으로 주셨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법과 이루시려는 경륜과 믿는 자의 identity와 duty와 삶을 나타내는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주를 믿는 자가 간구할 것은 이생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이며(마6:33) 영생을 위한 기도(살전4:16,17 꼭참조)이다. 이리 볼 때 믿는 자의 삶과 기도가 어땀해야 하는가를 발견케 된다.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이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체치 말고 돌이켜야하지 않을 까한다.

언제나 믿는 자의 삶은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종말론적이거나 개인적인 끝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 사역은 부활보다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다음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바로 선 일대일 관계이다. 곧 단순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에 바로 선 관계를 말한다. 이는 참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하나님나라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한다. 만일 이를 알지도 못하거나 거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열릴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 꼭 셈하여 볼 대목이다.

다른 것은 다 못한다고 해도 부활만큼은 놓쳐서는 아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성경에 비추어 매일 점검해야 한다. 준비된 삶의 실체는 요한복음 14, 15장의 말씀이라고 본다. 곧 내가 주안에 그리고 내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여(요5:7)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는 삶이며 이것은 포도나무에 꼭 붙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요15:4-5) 주님과 동행함을 뜻한다. 가라지는 버려진다.

복음의 근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현세적인 하나님나라를 거하다가 부활되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속에서 성취하시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는 준비된 믿음, 준비된 삶이 이렇게 소중하다.

(사진 : 2016년 GMI 국제총회 선교대회)

GMI - GKC

청지기 NEWSLETTER

2020년 6월 호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청지기 선교회 | gmi.steward@gmail.com

(선교지현황) 58개국 344 (71% 파송) 구소련-러시아-몰도바-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스탄-아르메니아-아프가니스탄 | 아시아/오세아니아-중국-몽골-태완-베트남-태국-라오스-캄보디아-한국-파키스탄-미얀마-인도네시아-인도-네팔-일본-방글라데시-이스라엘-요르단-타이-파푸아뉴기니-필리핀 | 아프리카-케냐-우간다-세네갈-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모로코-탄자니아 | 중남미-아르헨티나-칠레-도미니카공화국-베네수엘라-브라질-파나마-콜롬비아-쿠바-멕시코-파라과이-과테말라-페루-볼리비아 | 유럽-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스웨덴-프랑스-불가리아-영국-일본 | 북미-미국-캐나다

N국 선교소식

-N국 강00 이00-

N국은 6월 1일부터 공식적인 봉쇄령이 해제 됐고,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만명 이상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세계 4위까지 올라 갔습니다. 인도의 열악한 환경과 병원시설들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확진자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인도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왕 되심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향길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님의 지켜 주심과 함께 기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태철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 가져다주신 비타민제를 매일 학생들에게 먹였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뒷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결취선

GMI 세계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지기 가입 신청서)

| | | |
|--|--------|------------|
| 성명(영문) | 성명(한글) | 출석교회 or 그룹 |
| 주소 | 헌금번호 | |
| <input type="checkbox"/> 월 \$3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월 \$200 (후원이사) | 직분 | |
| <input type="checkbox"/> 월 \$_____ | E-mail | |
| 자동이체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체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 전화 | |

GMI 청지기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의 사항을 기입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청지기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714-397-6624 gmi.steward@gmail.com

1645 W. Valencia Dr.Fullerton, CA 92833 | Tel. (714) 446-6200 Ext. 238

6월 5일 웨스트뱅크로 떠난 아르뵘과 요리사 아난드 가족은 지금 격리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격리소에 14일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6월6일 오디사로 떠난 아딧띠야와 우마칸트는 기차 안,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격리소에 도착했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안전을 위해 기도부탁 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제이와 까를
히마찰 지역의 아제이와 까를 부부는 사학교의 생활이 그림자처럼 집에서도 새벽기도와 아침체조, 큐티와 말씀읽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글에는 Crying comes daily.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3기생이었던 아들을 잃고, 5기훈련생으로 온 이들 부부가 아들 생각에 다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훈련을 끝까지 잘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잔랄의 결혼
라자스탄 지역의 5기생 바잔랄은 몸이 성치 않은 사역자입니다. 35살인데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결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같은 5기생으로 차티스가르 지역의 바그투목사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32살 자매를 바잔랄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며 믿음생활을 하는 자매입니다. 이들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편잡의 만짓
1기생 만짓은 이웃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고도 열심히 사역들을 해 나가며 그 사진들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 속에 주님 기쁨부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었그제는 아내가 열이나고 헛소리를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아내위한 기도요청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큰 도시로 옮겨 병원에 간 것을 보니 심각한 모양입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행
인도에서 한국으로 가는 6월5일 특별기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특별기는 없고, 8월 이후에나 공식적인 항공편이 생길 것이라는 말에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도대사관과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의 주관으로 6월20일 특별기가 생겼고 저희들에게 좌석이 확정 되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한국 도착과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숨이 가쁘다
저는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서 한국가면 병원에 가 보려고 합니다. 가끔 숨을 못 쉬겠는 때가 있기는 했는데, 이번 해 4월부터는 매일 그렇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때는 머리가 쩡하게 아프면서 온 몸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강선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 물은 손으로 만지셔서 깨끗히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반기 훈련
지금 인도의 코로나-19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곧 정점을 찍고 확진자의 수가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9월쯤에 보급 된다고 하니 희망을 가집니다. 9월에는 하반기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5기 학생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모두가 능력의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한 저희의 인도입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심과 성령충만 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잔지바르는 지금

-탄자니아 송규영 오호숙선교사(선훈5기)-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와 혼란에 빠져 나라의 빙장을 꼭꼭 지르고 항공 교통수단이 차단되고,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실직을 당해 신음하며 경제공황 수준의 충격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11)** 말세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남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곳은 며칠 전에 한 달간의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기도가 끝나고 그들의 이디 축제기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온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요란하게 치르는 축제인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역사 이래로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코로나19 전염병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역이 올 스톱되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에버그린 학교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3월 초에 문을 닫아 현재까지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도하여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열악한 경제상황인자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부모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이들 또한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놀기만 하고 있어 10월에 있을 4, 6학년 정부시험이 염려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곳은 관광수입이 없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코로나19와 우기철, 라마단을 보내며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들도 학비를 내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조차 주지 못하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봉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만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봉급을 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잔지바르 물가가 비싸서 이곳에서 생활할 여력이 없어 육지 본가로 돌아간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학부모들이 학비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생님들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우선 봉급의 50%를 지급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확실할 수 없기에, 학교 건물 렌트비와 선생님들 봉급 및 학교 운영비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성경대학 역시 중단하였고 모여서 함께 공부하지 못하는 대신 하루에 말씀 10장씩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키딤니 학교건축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책걸상 및 비품 구입, 조경공사, 그네, 전기, 수도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필요한 재정 공급과 믿음으로 가르칠 교사를 보내 주시기를 또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학교가 닫혀 있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은 아직 잡히지도 않고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며,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고통 때문에, 폐쇄했던 공항을 다시 열고 닫혔던 학교를 개학 시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더 이상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가로막혀 답답한 상황이지만, 저희들도 하루에 말씀 20장씩 읽으며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몸부림 치고 있는데,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의 소중함을 얼마나 소홀히 했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멀어졌던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영육에 강건 하시기를, 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들이 잘 견디고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또 저희 부부의 건강 (오: 치과치료, 송: 치통, 고관절 통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사랑 부어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늘 건강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나눔 속의 선교지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선교사(선훈5기)-

살롬
코로나19로 아직 지역간의 통행이 불가능 하였지만 지역 경찰서에서 통과 할 수 있는 레터를 받아 마사떼낭고 지역으로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각 가정에는 계란, 옥수수, 콩, 설탕, 쌀, 가루 스프, 식용유 등과 아이들 과자와 사탕도 넣어 꾸밈하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교회 목사님들 중에 어렵다고 하셔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사랑의 손길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

그 동안 정부로부터 들은 정보로 인해 기대하며 힘들지만 기다렸습니다. 이곳의 사정은 날로 힘들어지고 비참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아무 것도 없는 저희 교회 건물까지 들어가 뭔가 가지고 가려고 시도를 시작 했습니다. 교회가 부서지고 도난을 당하는 것보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이런 악조건에서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백인 빈민들은 정부의 도움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제외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사람들의 구제의 손길로 마을에 있는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구제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인 5가정을 백인 중 지인에게 부탁하여 선정해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흑인들은 도움을 달라고 달려드는 것이 대부분이고 반면에 백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흑인들은 비참하게 보이고 가난한 백인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고 있고 썩스러워하거나 아예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때로는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흑인들은 강동 집에서 지내지만 백인들은 노숙하거나 남의 빈집에서 몰래 살거나 었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부에서의 도움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대상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다 가난해서 어렵고 굶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을 구비하고 나누어서>



<백인 가정에게 나누어 주고>

더욱 자세한 선교사님의 소식은 gmimission.org에서 확인하세요.